

수능특강 81쪽



유산가 | 작자 미상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 구경
 가세
 ㉠만산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 일도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하고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중(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유상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¹⁾
 ㉡삼춘가절이 좋을시고
 도화만발(桃花滿發) 점점홍(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漁舟逐水) 애산춘(愛山春)이었던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예 아니냐²⁾
 양류세지(楊柳細枝) 사사록(絲絲綠)하니
 황산곡리(黃山谷裏) 당춘절(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³⁾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훨 펴고
 펄펄 백운간(白雲間)에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같고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岩)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層岩絕壁上)에 폭포수(瀑布水)는 쿵쿵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활활 열의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코라지고 평퍼저 년출지고 망울저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쿵쿵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가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 潁水)가 이 아니냐

주각제금(住刻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⁴⁾

㉥일출낙조(日出落照)가 눈앞에 버려니 경개 무궁(景 慨無窮) 좋을시고

-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어휘 풀이]

1) 유상앵비~분분설이라 - 버드나무의 피꼬리는 조각조각 금빛이고, 꽃 사 이 나비는 내리는 눈과 같도다. 2) 어주축수~예 아니냐 - 고깃배를 타고 물결을 따라가며 봄 산의 경치를 즐기니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3) 양 류세지~예 아니냐 - 버드나무의 가지가 줄기마다 푸르고 황산의 골짜기에 봄이 돌아오니 도연명이 살던 오류 마을이 여기 아니냐. 4) 주각제금은~ 일년풍이라 - 두견새는 천고의 절개를, 소쩍새는 풍년을 노래하네.

[현대어 풀이]

꽃이 활짝 피어 봄을 맞이한 성(城)에 만발하구나. 시절이 좋구나 벗 님네야, 산천의 경치를 구경 가자구나.

대나무 지팡이와 짝신, 한 소쿠리의 밥, 물을 들고 천리강산 들어가니 온 산의 꽃들은 일 년에 한 번 다시 피어나서 봄 색을 자랑하느라고 색갈마다 붉었는데,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과 풀은 난만한(활짝 피어 화려한) 가운데 꽃 속에 잠든 나비는 여기저기 날고 있도다. 버드나무 위로 나는 피꼬리는 조각조각 금조각이요, 꽃 사이에 춤추는 나비는 가루가루 흩날리는 눈이로다. 봄 석 달의 아름다운 계절이 좋구나. 도화는 만발하여 점점이 붉어 있고, 고깃잡이배를 띄워 놓고 봄을 즐기니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 아니냐? 버드나무 가는 가지는 가닥가닥 녹색을 띠고, 황산 골짜기에 봄을 맞았으니 도연 명이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 놓고 지냈다는 곳이 여기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오르며 날고,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 하늘 한복판에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펄펄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 리 먼 길을 어찌 갈까 하고 슬피 운다. 먼 산은 첩첩, 태산은 우뚝하며, 기이한 바위는 층층이 쌓였고, 큰 소나무는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구부러져 성난 바람에 흥이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층 바위 절벽 위의 폭포수는 쿵쿵 쏟아지는데, 마치 수정발을 드리운 듯,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물이 주룩주룩, 쌀쌀 흘러내리고 여러 곳의 물이 한 속에 합수하여 천방지방으로 솟아 오르고 퍼져 나가고 끝없이 이어지고 방 울지며 흐르다가 건너편 병풍석으로 으르렁 쿵쿵 흐르는 물결이 은옥 같이 흘러지니, 소부와 허유가 세상과 단절하고 지내던 기산과 영수가 바로 여기가 아니냐?

주걱새 울음소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절개를 알리고, 소쩍새 울음소리는 한 해의 풍년 들 징조를 알리는구나. 아침에 뜬 해가 저녁 놀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경치가 한없이 아름답구나.



<유산가>

☑ 시구 풀이

-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 봄이 오니 꽃이 활짝 피어 성에 가득하고, 만물이 나서 자라는구나.
 - 상투적 한문투: '잡가'가 하층문학이면서도 상층문학을 모방·지향했다는 증거
 - 상투적 한자어를 사용하여 봄날에 꽃이 만개한 풍경을 묘사함.
-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계를 구경 가세
 - 때가 좋구나 세상 사람들이여, 산천 경치를 구경이나 가자.
 - 서사: 봄경치 권유
-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 구경 가세
 -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 한 소쿠리의 밥, 물을 들고 천리 강산 들어가니
 - '죽장망혜 단표자'는 아주 가볍고 간편한 행장을 말한다.
 -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 신고, 표주박을 둘러메고 강산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여 소박한 태도로 자연을 즐기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만산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 일도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 온 산에 가득한 꽃과 풀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다시 피어, 봄빛을 자랑하느라고 색색이 붉어 있는데
-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하고/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중(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만발하여 흐드러진 가운데, 꽃 속에 잠든 나비가 사뿐하게 날아오른다.
- 유상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 버드나무 위에 나는 피꼬리들은 마치 여러 개의 금 조각 같고, 꽃 사이에서 춤추는 나비들은 어지러이 날리는 눈송이 같구나.
 - 대수와 은유를 통해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제시함.
- 삼춘가절이 좋을시고/ 도화만발(桃花滿發) 점점홍(點點紅)이로구나
 - 봄 석 달의 아름다운 계절이 좋구나. 복숭아꽃이 만발해서 여기저기 붉었구나.
- 어주축수(漁舟逐水) 애산춘(愛山春)이었던/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예 아니냐
 - 고기잡이 배를 타고 물을 따라가며 봄철을 즐기니, 무릉

도원이 바로 여기 아니냐?

- 화자의 유희적인 자연 예찬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자연을 실제적인 공간이 아닌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절대화하여 '무릉도원', '연명오류' 등의 동양적인 이상향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양류세지(楊柳細枝) 사사록(絲絲綠)하니
 - 버드나무 가느다란 가지들이 실처럼 늘어져 푸르고
 - 버드나무 가지들이 푸르게 늘어선 모양을 통해 도연명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봄을 맞이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도연명이 말했던 무릉도원의 세계를 연상하고 있다.
- 황산곡리(黃山谷裏) 당춘절(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 황산의 골짜기 안에서 봄을 맞으니, 도연명이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 놓고 지냈다는 곳이 여기 아니냐?
-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씬 펴고/ 펄펄 백운간(白雲間)에 높이 떠
 - 제비는 물을 차며 날고 기러기는 떼를 지어, 하늘 한복판에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펄펄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갈고 슬피 운다.
 - 천 리 먼 길을 어찌 갈까 하고 슬피 운다.
 - 작품 전체의 정서와 이질적임.
 - 의태어를 활용하여 기러기들이 하늘 높이 떠서 슬피 울며 날아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봄의 유희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비애적인 정서를 알리는 문면으로, 화자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기러기가 날아가는 정경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 멀리 있는 산은 겹겹이 있고, 큰 산은 우뚝 솟았으며,
- 기암(奇岩)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 기이한 바위는 층층이 쌓였고, 큰 소나무는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홍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 조금 휘어져서 미친 듯 사나운 바람에 홍을 못 이겨 우줄우줄 춤을 춘다.
 - 의태법을 사용하여 자연 경치를 실감나게 묘사함.
- 층암절벽상(層岩絕壁上)에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 바위가 겹겹으로 쌓인 절벽 위에 폭포수는 팔팔 쏟아져, 수정으로 만든 발을 드리운 것 같고
-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활활 열의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코라지고 평퍼저 년출지고 방울져
 - 이 골짜기의 물이 주루룩 흐르고, 저 골짜기 물이 쏟아

썰 쏟아져, 여러 골짜기의 물이 한데 합쳐져서, 천방지방으로 솟구쳤다가 평평하게 퍼지고 물줄기와 솔방울을 이루며

-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오르령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 저 건너 병풍처럼 둘러선 바위를 향해 오르령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구슬같이 흘러지니
- 절벽 위에서 내리치는 폭포수가 솟구쳐 흘러내리는 모습을 순 우리말로 된 의성어와 다양한 표현으로 생동감 있게 제시한 부분이다. 이 작품의 표현적 특징인 생동감 있는 묘사가 돋보인다.
- 소부(巢父) 허유(許由)가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이 아니냐
- 소부와 허유가 세상을 단절하고 지내던 기산과 영수가 바로 여기가 아니냐?
- 주각제금(住각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豊)이라
- 주각새 울음소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절개를 알리고, 소쩍새 울음소리는 한 해의 풍년 들 징조를 알리는구나.
- 일출낙조(日出落照)가 눈앞에 버려니 경개 무궁(景概無窮) 좋을시고
- 아침에 뜬 해가 저녁 놀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경치가 한없이 아름답구나.
- 새들이 봄을 맞이해 울고 있는 모습을 대구의 방식으로 제시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특징

- 갈래: 잡가
- 성격: 서정적, 향락적, 유흥적, 영탄적
- 의태어와 의성어를 번번이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함
- 가창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정한 운율로 전개됨
- 대구법, 열거법, 비유법 등 다양한 표현방법을 활용함.
-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함.
- 4·4조 운율이 주조를 이루거나 일부 파격적인 부분도 있음.
- 우리말과 한자어가 혼용되어 쓰임.

✓ '유산가'의 잡가적 성격

잡가	개념	민요적 성격의 노래로, 가사보다는 다양한 형식으로 세속적이고 유흥적인 감정을 표현한 노래
	특징	평민문학의 한 영역으로서 서정성, 교술성을 지님
	내용	남녀간의 사랑, 자연의 유희와 감흥, 일상적 삶의 애환
	의의	조선 후기 전대의 가사 형식의 정형성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시가 형식임

잡가로서의 유산가 : 서울을 중심으로 불렸던 12잡가의 대표작으로 봄의 정취와 감흥을 노래함.

✓ 우리말과 한자어의 이중적 문기

유상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접무(花間蝶舞)는 뽕설(紛紛雪)이라

→ 향유계층인 양반을 고귀한 한자어 중심 표현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샅샅

→ 창작계층인 서민층의 특성이 반영된 우리말 중심의 표현

봄 경치 구역 권유	봄 경치 완상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
만산 홍록 유상앵비 창송취죽 화간접무 기화요초 도화 만발 산천 경개 구경	제비 기리기 첩첩산중 기암괴석 폭포수 낙락장송 •봄의 화려한 경치 나열 → 동양화적 화폭 •봄의 장엄한 경치 완상 → 웅장한 풍경화	일출 낙조 경개 무궁

봄 경치의 완상과 예찬: 자연 친화적, 자연 예찬적인 태도

※ 작가 미상, <유산가(遊山歌)>

- 주제 : 아름다운 봄 경치의 예찬
- 해제 : 조선 후기 유행한 12잡가의 하나로, 봄날 산천의 아름다움을 풍류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중국의 고사와 한시를 활용하였고, 대구와 비유법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봄 경치를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4·4조가 중심을 이루는 가사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 구성
 - [서사(화란춘성하고~구경 가세)] 산천경개 구경을 권유함.
 - [본사 1(죽장망혜 단풍자로~연명도류가 예 아니냐)] 봄 산의 아름다운 경치
 - [본사 2(제비는 물을 차고~기산 영수가 이 아니냐)] 봄 경치의 감상
 - [결사(주각제금은~좋을시고)] 무궁한 자연 경치의 예찬